

근대 이후 초등학교 내 교사 공간배치 연구: 교육과정 시기별 개교한 전주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김준영*

A Study on the Spacial Layout in Elementary School since Modern Era: Focused on Elementary Schools which can Show Four Different Periods in Educational Policy in City of Jeonju

Jun-Young Kim*

요약 : 근대기 학교는 새로운 시대의 시공간적, 지식적 인식과 함께 새로운 교육제도로써 만들어졌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의 보통학교의 도입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후 초등학교는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교육환경, 교육정책에 따라서 그 공간의 변화를 요구받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요구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공간의 시대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교육과정의 재개정에 따른 각 시기를 반영할 수 있는 전주시 다섯 개 학교를 살펴보았다. 일제강점기에 개교한 전주초등학교와 풍남초등학교, 산업화시대를 반영하는 1971년 개교한 화산초등학교, 민주화와 개인화를 대별할 수 있는 시기인 1995년에 개교한 중산초등학교, 그리고 최근 2016년에 개교한 홍산초등학교 등을 통해 우리나라 초등학교가 일제강점기의 근대교육을 위한 장치로서의 공간구조를 산업화시대까지 그대로 이어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획일화된 공간은 90년대 개교한 중산초등학교 내 교사 공간구조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이 시기 민주화 및 개인화가 강조된 분위기에 따른 교육과정 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개교한 홍산초등학교는 2012년 이후 시행해 오는 교육시설공모전의 주제나 설계요건 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많으며 현 교육과정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는 창의적인 체험활동이 강조되며 열려있고 변화될 수 있는 다목적공간이 마련되고 주민을 위한 학교의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이는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중심노드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이다. 주민들에게 대어할 수 있는 특별교실을 저층에 배치하여 지역민들의 사용이 용이해진 점 등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다.

주요어 : 초등학교, 교육정책, 교사공간구조

Abstract : School system was created to educate people for the new modern era. This is the same case for Korean elementary school system. It was initiated in Japanese colonial period of Korea. The school was required to adjust the spacial structure in accordance with the new educational policy and social environment, as it passes through history. This study looked at five elementary schools in Jeonju to explore the spatial change of them with educational policy. These five schools are Jeonju and Pungnam elementary school which were open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Hwasan elementary school opened in 1971 of industrial era, Jungsan elementary school opened in 1995, when democratization and personalization was emphasized, and Hongsan elementary school opened recently. The spatial structure created as a device for a disciplin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time was continued after the independence because it was easily adapted into Korean elementary school system of industrialization period. However, as we look at Jungsan elementary school, the spatial structure of it was modified to reflect reformed educational policies in mid of 90's. Recently opened Hongsan elementary school contains open and flexible spaces which can accomodate the creative experiential activities. It also places a rentable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Architecture, Jeonju University, junyoungkim@jj.ac.kr)

special rooms in lower level to meet the school's role to neighborhood community. These trends of school are also addressed in the Architecture Competition of Educational Facilities which was committed since 2010.
Key Words : Elementary school, Educational policy, School spatial layout

I. 서론

기든스에 의하면 18세기 근대국가를 국민국가로 칭하고 있다. 근대는 시공간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새로운 의미가 담기는 시대였다. 이 가운데 출현한 국민국가는 새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차원에 기반하고 있었다. 이런 사회유지를 위한 제도적 차원은 자본주의, 산업주의, 군사적인 힘, 그리고 감시로 이 중 감시의 기능을 담당할 여러 제도중 하나가 교육이다. 교육은 이런 맥락에서 공교육화하며 감시와 통제의 기능을 담당하였다(진덕규 역, 1991).

특수한 근대화과정을 겪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학교의 제도화는 이루어졌으며 일제기의 초등학교 설립은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푸코는 통치나 감시 장치로서 감옥의 공간구조를 언급한 바 있다(오생근 역, 1994). 대도시에서 등장한 다양한 건축유형은 근대의 변화하는 사회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한 공간장치로 이용되었으며 이중 교육기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유우상 등 역, 2006). 특히 우리나라의 근대기에 등장한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는 식민사회의 시민 기초교육을 담당한다는 면에서 통치 장치로서의 기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해방이후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국민학교’라는 명칭으로 공교육화함으로써 제도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은 50년대 1차 교육과정의 수립되어 2015년 수정된 7차 교육과정까지의 제도와 내용의 변화를 현재까지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각 시대의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공유된 요구나 특정 정부의 통치적 이념에 의한 요구 등이다. 즉 교육제도의 변화는 당시의 통치이념의 주안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공간에 반영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간의 사회적 기능과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초등학교를 바라보고자 한다. 특히 초등학교가 근대에서 현대 또는 탈근대로 이행하는 가운데 사회적 요구의 변화가 공간적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

발한다. 또한 초등학교가 근대의 제도적 통치의 장치로서 기능했던 것에서 탈근대시기인 현대에도 여전히 제도적 장치의 기능으로 사용되기 위한 공간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특히 초등교육과정과 제도의 변화에 따른 학교공간의 변모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연구의 목적

조명래(2013)에 의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은 사회적 삶의 관계나 그 질서를 그대로 투영한다고 한다. 초등학교는 사회적 관계를 공적으로 학습하고 질서를 습득해갈 수 있는 공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런 공간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른 끊임없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적 변화는 각 시대의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따른 교육에서의 주안점과 방법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지를 연구문제로 삼고자 한다. 특히 교육과정의 변화는 당시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사료되며 이는 다시 학교 내 교사 공간 배치 변화를 요구할 것이라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변화시점을 고려한 서로 다른 시기에 개교한 전주시 다섯 개의 초등학교를 살펴봄으로써 사회의 교육에 대한 요구에 초등학교 교사 공간 배치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산업화 시대에서 탈근대기로 변모하는 현대에서 요구되는 초등학교의 모습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기존 초등학교의 모습에서 다른 공간들이 시도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푸코의 지적대로 학교가 근대의 새로운 통치 장치로서 기능했다면 다시 탈근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새로운 모습의 장치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선행연구 고찰

먼저 근대의 교육제도의 변화 전반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수경은 “근

대성 구현체로서 학교: 시간, 공간, 지식의 구조화”를 논하며 근대를 표준화, 전문화, 동시화, 집중화, 중앙집권화 등의 성격을 가진 시대로 학교는 새롭게 요구되는 산업화시대의 표준화된 시간체계에서 규율을 학습하고 이를 체화하는 장소였음을 논하고 있다. 이런 시간과 공간 그리고 지식적 측면에서의 구조화는 새로운 규칙을 교육하고 정착시키는 제도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구수경, 2007).

강기수·김정호(2013)는 초등학교공간의 변천 과정과 공간별 특징을 분석하며 학교공간이 일제강점기의 공간 구조를 주로 따르고 있으며 전통적인 학습과 훈육을 위한 공간 형태를 띠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공간을 교수학습공간, 관리지원공간, 행사놀이공간, 보건위생공간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지도, 관리, 통제 중심의 구조가 주로 작동되고 있다는 면에서 공간별 특성에 따른 다양성은 잘 나타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도, 관리, 통제 중심의 공간은 우리나라 학교 공간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획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모습의 원인이 되었다.

노란 등(2011)은 학교시설의 교육정책에 따른 시설 설비 법령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당시의 이데올로기적 변화가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교육과정은 다시 학교시설의 기준을 변화시켰음을 논하였다.

학교교사 공간의 획일성을 벗어나고자 하는 해외사례나 국내사례 연구들이 행해졌는데 김진모·임수영(2007) 미국과 일본의 초등학교에서 새로운 공간구조로 오픈플랜, 셀프콘텐츠인드 클래스룸, 열린 학교의 개념을 소개하며 새로운 교육과정의 도입에 따라 시도되는 공간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국내 교육시설의 다양한 모습으로의 변모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사례 연구라 생각한다. 또 하나의 연구 유형으로 최근 요구되는 새로운 학교에 대한 것으로 이기쁨(2015)은 학교 공간 디자인이 학교 교육과 경영에 가져온 변화 연구를 통해 학교디자인에 참여형 디자인을 도입한 사업을 통해 전문가 외에 학생, 교사, 학부모가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교육과 구성원의 학교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최근 학교공간이 기존의 획일적인 모습에서 탈피하여 다양화하려는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근대기 학교공간에서 현대 또는 탈근대기 학교공간으로의 변모로 논할 수 있다.

진동섭 등(2014)은 폐교 위기를 극복한 J초등학교 D분교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변화의 새로운 요인 탐색연구에서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사례가 많지만 이를 극복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현대의 학교공간이 새로운 요구나 도전 등에 직면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학교는 근대기의 새로운 규율을 학습, 체화시키기 위한 공격장치로 만들어졌으며 이는 국내 초등학교에서도 동일하게 이해될 수 있다. 이후 학교는 각 시대의 변화하는 요구에 제한된 상황에서 순응하며 변화해 왔으며 현대의 교육환경에 맞추어 시설 면에서도 새로운 모색을 계속하고 있다. 새로운 교육환경에서 근대기 학교에 요구된 규율의 학습, 체화장치 역할은 약화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탈근대기의 학교 내 공간 역시 새로운 교육정책이나 분위기 등과 무관하지 않음을 고려할 때 공격적인 제도는 여전히 학교 내 공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새로운 방식의 통제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현재의 학교가 담고 있는 제도적 공간장치를 연구하고자 하며 연구 대상 사례로 우리나라 교육과정 변화 시기를 반영하는 시기에 개교한 전주시 초등학교를 삼고자 한다. 전주시 초등학교를 선택한 것은 우리나라 초등학교가 전국적으로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됨으로 지역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전주시의 초등학교가 전국의 초등학교 양상을 대표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문헌자료

본 연구 자료로 50년대 처음 제정되어 7차에 걸쳐 변화해온 교육과정을 포함한다. 교육과정의 개정시점은 대체로 우리나라의 정치적 변화 시기와 일치하는데 이런 교육과정 변화 시기에 개교한 전주시의 학교 공간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일제강점기에 개교한 전주초등학교와 풍남초등학교, 2차 교육과정기인 1971년 개교한 화산초등학교, 92년 6차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95년 개교한 중산초등학교, 그리고 97년 7차 교육과정이 2015년

개정된 시점에서 개교한 전주시 흥산초등학교 사례가 본 연구에서 선택한 대상이다. 또한 최근 새롭게 교육시설에 요구되는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교육시설학회에서 2010년부터 매년 주관하고 있는 교육시설 공모전의 수상작 가운데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작품을 살펴봄으로 작품에서 제시되고 있는 키워드 양상을 추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시설학회에서 주어지는 공모전의 주제와 수상작들의 토론자에서 나타나는 어휘들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학교에 요구되는 경향을 추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시설공모전의 주제와 출품된 작품들을 연구 자료로 포함한다.

2. 50년대 이후 교육과정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1955년 1차로 제정된 이후 표 2와 같이 1997년 제정된 7차 교육과정까지 개정되었다. 개정의 시기는 완전히 규칙적이지 않으나 대개 5년마다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중 2차 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이 가장 오랜 기간 지속된 교육과정이며 5차와 6차 교육과정은 해수로 6년 지속되어 비교적 짧게 유지된 과정이다. 1997년 제정된 7차 교육과정은 현재까지 이르고 있지만 두 차례의 개정이 2007년 2015년에 있었다(허문권, 2010).

각 교육과정이 개정된 시기는 우리나라의 시대상황이 급변하는 것과 연관되어 보인다. 이를 이종국(2008)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차 교육과정이 제정된 1955년은 6·25전쟁이 휴전된 시점에서 전후 사회복구가 시급했던 시기였다. 이에 교육과정도 사회개선의 의지가 담기는 가운데 반공교육, 도의교육, 실업교육이 강조되었다. 2차 교육과정 제정은 1963년에 이루어짐으로 이 시기에 박정희정부의 국민교육헌장이 마련되었다. 국민교육헌장은 조국 근대화를 표방하며 이에 대한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교육은 인간 개조 운동을 실현하는 도구였으며 이는 학교가 다시 통제의 기능을 담당하는데 큰 역할을 했음을 의미한다. 2차 교육과정은 생활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의 학습이 학교의 지도하에 생활 속에서 경험될 것을 강조하였다. 이 시기에는 교육과정을 교과과정, 반공·도덕생활, 특별활동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교련이 강조되며 정식교과목으로 채택된 것도 이 시기이다. 3차 교육과정은 유신헌법이 제정된 시기의 과정으로 국민교

표 1. 1차 - 7차 교육과정의 변화

교육과정	제정 시기	사회적 요구에 따른 특이점
1차	1955-1963 (9년간)	6·25한국전쟁 이후 1공화국 시기 - 사회를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계획은 전후 사회복원의 필요성을 반영 - 우리나라의 특수성으로 반공 교육, 도의 교육, 실업 교육 등이 강조 -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리도록 유의하고자 함
2차	1963-1973 (11년간)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3공화국 시기 - 생활중심의 교육과정 - 국민 학교와 중학교의 교육 과정의 전체 구조를 교과 활동, 반공·도덕생활 및 특별 활동 등으로 구성, 국민교육헌장이 만들어진 시기 - 교련교과목 위상이 높아짐
3차	1973-1981 (9년간)	1972년 유신헌법제정 이후 4공화국 시기 - 학문중심 교육과정 - 국민교육헌장 이념 구현이 기본방향 - 민족 주체 의식의 고양, 전통을 바탕으로 한 민족 문화의 창조,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융성과의 조화를 강조하여 국가 속에서의 개인이라는 면에서 통치 장치로서의 역할이 극대화 되고 있음
4차	1981-1987 (7년간)	1981년 8차 헌법 개정에 의한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 시기 - 국민정신 강조에 역점을 둔 교육과정 - 민주주의를 토착화하고, 복지 사회를 건설하며,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한편, 교육을 혁신하고, 문화를 창달하는 일을 국정 지표로 삼고 있음을 강조하며 교육은 이에 적극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는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국민을 길러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
5차	1987-1992 (6년간)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6공화국 출범 직전 - 통합중심교육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 1987년 민주화를 계기로 교육과정에 민주주의와 관련된 내용이 늘어남
6차	1992-1997 (6년간)	1993년 김영삼 문민정부 시기 - 교육과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최초로 적용 시작 - 창의성과 도덕성이 처음으로 강조 - 1995년 지방자치의 시작으로 각 시·도 교육감이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정하여 시행할 특기할 만한 -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생활, 민주적이고 협동적인 생활이 강조 - 자기표현과 개성발달을 위해 개개인의 소질 신장이 강조 - 이전의 교육이 상대적으로 획일화되고 표준화된 국민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었다면 초등교육이 개인의 성장으로 초점을 옮기고 있음 -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현대적인 컴퓨터 교육이 초등/중학교 과정에 최초로 들어감 - 1996년 관련조례로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명칭 변경
7차	1997-현재	1998년 2월 출범한 김대중 정부 시기 -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 과정 -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 과정임을 강조 2009 개정 교육과정 - 내용과 방법의 다양화를 모색함으로 국민공통교육기본과정에 재량활동(교과재량활동, 창의재량활동)을 포함시킴 2015 개정 교육과정 - 핵심역량을 강조하며 창의융합형 인재를 언급하며 선택학습과 참여형 교육을 강조

출처 : 이종국, 2008.

육현장 이념 구현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융성과의 조화를 강조하여 국가 속에서의 개인이라는 면에서 통치 장치로서의 역할이 극대화되고 있다. 4차 교육과정에서도 ‘국민정신 강조’를 역점으로 하여 교육이 다시 한 번 국가의 통제 장치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5차 교육과정은 통합중심교육으로 1987년 민주화를 계기로 교육과정에 민주주의와 관련된 내용이 늘어났다. 6차 교육과정기는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뀐 시기로 중앙집권형 교육과정을 지방분권형 교육과정으로 전환하여 시도와 학교의 자율재량권을 확대해 운영하며 지역별 교육과정, 학교별 교육과정이 도입되었다. 특히 이전의 교육이 상대적으로 획일화되고 표준화된 국민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었다면 초등교육이 개인의 성장으로 초점을 옮기고 있다(이종국, 2008).

강만호(2005)는 7차 교육과정이 교육공급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획일적 교육에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으로, 규제와 통제 중심 교육운영에서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교육운영으로, 획일적 균일주의 교육에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교육으로, 흑판과 분필중심의 전통적 교육에서 교육의 정보화를 통한 21세기형 열린교육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였다라고 한다. 이런 점에서 7차 교육과정은 통제의 학교 기능을 자율과 책무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푸코의 파놉티콘 이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자율에 의한 감시는 더욱 더 고도화된 통제의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학교에서의 자율적인 환경에서 통제를 체득해가는 것은 탈근대기 학교에도 유효할 수 있으며 이를 근대 학교에서 현대의 탈근대기의 학교로 전환노력으로 칭할 수 있을 것이다.

3. 교육시설 공모전 문헌조사에 의한 도출내용

7차 교육과정 제정 이후 학교의 패러다임 변화로 통제에서 자율을 언급하였으며 이는 탈근대기로의 학교의 전환으로 칭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런 경향은 학습자 중심의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교육운영, 다양성이 존중되는 교육, 교육의 정보화를 통한 21세기형 열린교육 등을 지향한다. 이를 건축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최근의 교육시설의 경향을 살펴보고자 교육시설 공모전의 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010년 1회 교육시설디자인 공모전은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된 것으로 그 주제는 ‘우리들의 학교 건축’이었다. 이에 대한 세부주제는 미래지향적인 건축, 지역커뮤니티의 중심시설로서 열린 건축, 에너지 및 자원을 절약하는 친환경 건축이다.

2011년 2회 공모전의 주제는 ‘내일의 학교건축’으로 세부 주제는 디지털시대와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는 미래의 학교건축, 녹색성장, 지속가능한 건축개념을 담는 학교건축이다. 교과교실형이나 교육시스템을 원활히 수용할 수 있는 창의적 공간구성의 제안을 요구하고 있다.

2012년 ‘변화하는 학교’라는 주제로 사회, 문화변화에 대응하는 학교건축, 인구구조 변화를 대비하는 학교건축, 공동체 삶의 문화를 지향하는 학교건축을 소주제로 하고 있다.

2011년과 2012년의 주제로 학교를 국가적인 획일화된 교육기관에서 지역커뮤니티의 중심시설로서의 열린 시설로 관점을 전환하고자 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예로 과거 학교의 운동장이 체육과 교련을 강조한 교육시스템에서의 공간장치이기 보다 현재 지역주민들의 운동할 수 있는 근린공원의 기능을 겸하고 있는 것이 확대되고 있다. 또 하나 이시기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기간이었다는 점에서 녹색성장이 학교의 담론에 매우 큰 비중을 가지고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2년은 2010~2011년에 비해서 학령인구 감소라는 시대적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2013년은 ‘창의지성 교육 실현을 위한 공간’으로 STEAM 교육을 대비하는 학교건축, 액션러닝요구에 대응하는 학교건축, 함께 수업을 위한 학교건축을 소주제로 하고 있다. 2013년은 박근혜대통령의 임기가 시작하는 시점으로 창의지성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띈다. 이는 정부의 중점정책이 학교공간구조의 변화를 수반할 수 있음도 주목할 만하다.

2014년 ‘지역재생의 거점으로서의 학교’라는 주제로 커뮤니티와 학교, 지역재생과 학교, 평생학습도시와 학교, 지역사회복지와 학교라는 소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는 근래 관심을 받고 있는 도시재생 담론이 학교건축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관점은 정부나 지자체가 저 출산 노력화 사회와 도시쇠퇴로 인한 문제를 학교가 보유한 인력, 시설,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포괄적 지역복지 시스템으로 개선하고자 함이다. 이는 학교시스템을 정책적으로 건강, 보육, 생애학습, 고용 등의 지역복지시스템으로

로 활용하고자 함으로 푸코의 제도적 장치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지역·학교 연계 시스템을 통해 민·관·학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재생의 동반 관계라는 구호로 표현하고 있다.

2015년은 '미래를 여는 학교'로 저 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감소사회의 미래 교육환경과 학교 디자인, 안전한 학교, 안심마을 거점으로서의 학교 디자인, 다문화사회의 새로운 교육환경으로서의 학교 디자인, 스마트 교육 환경으로서의 학교 디자인이라는 소주제를 요구하고 있다. 2014년 이후 지역재생의 도구로서의 학교가 계속 중요한 담론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저 출산 문제에 의한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폐교문제가 중요한 사회이슈로 도시의 공동화 현상이 폐교 등으로 지시될 수 있고 또 가속화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의 연장선으로 2017년 주제는 지역의 중심이 되는 미래학교 만들기이다. 학교가 중앙의 통제를 위한 기관이기 보다 이제 지역의 자율적 중심이 되는 노드로 인식됨은 탈근대기 학교의 경향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최근의 학교는 미래교육에 대한 모색, 지역사회에서의 커뮤니티 중심으로서의 학교, 인구감소 추세 가운데 지속가능한 기반시설로서의 학교 등을 지향하고 있다.

4. 교육과정 변화 시기에 따른 우리의 학교건축 경향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일제강점기를 통한 근대화와 함께 출발함으로 당시의 통제가 학교 내 공간구조에 반영되었고 할 수 있다. 일자형 복도에 의해 학생들의 동선이 한눈에 보일 수 있음과 복도에서 들어가는 획일화된 각 교실모습과 배치는 표준화된 규율을 효과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장치로 사용되었다(김진균·정근식 편, 1997). 이는 푸코가 논한 파놉티콘의 공간구조와 일맥상통한다.

교실의 실내구조에서도 강단을 전면에 두고 선생님의 강단이 조금 높게 배치됨으로 권위를 느낄 수 있는 공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초등학교의 운동장은 군사교육이나 집체훈련 등을 위한 장치로 쓰였다. 운동장의 단상 역시 군대의 연병장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 역시 통제의 장치로 읽을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해방 후 산업화시대에도 대체적으로 유지되었다. 1962년에는 학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초등

학교가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고 표준 설계도면이 마련됨으로 초등학교가 다수 개교하게 되었다(강기수·김정호, 2013). 이들은 2차 교육과정기인 당시의 국민윤리와 통치이념들을 표준화하여 대량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다. 즉 대체적 공간구조는 일제 강점기의 것을 받아들임으로 집단주의적인 교육환경이 계속적으로 쉽게 유지될 수 있었다. 또한 1960년대의 학교시설, 설비기준령은 공간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여건 마련을 제시함으로써 많은 학교가 빠르게 설립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강기수·김정호, 2013).

1990년대에는 6차 교육과정기로 열린 교육의 실천 등을 반영한 공간으로 설계되는 학교들이 등장하였다(이은미, 1994). 이는 민주화와 지방자치제도의 확대 등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1995년에는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개명되었으며 이는 41년 일제치령에 의해 공포된 보통학교가 국민학교를 거쳐 초등학교로 개명함으로써 일제의 잔재를 청산한 국가적 의미가 있다. 국민학교가 아닌 초등학교는 민주적인 분위기와 다원화된 사회를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시도하였다. 7차 교육과정 적용 이후 수준별 교육, 재량활동 및 정보 운용능력을 통한 창의적 교육을 지향하여 이를 위한 공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다양한 학습을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이 조성되고 이를 포함한 학습공간의 유형은 대형교실형, 복도확장형, 복도부가형, 독립형, 홀형, 종합교실형 등이 나타났으며 이중 복도확장형이 일반화되었다(강만호, 2005). 여기에 1998년 우수학교시설 시상제도를 통해 학교의 형태와 공간구조는 더욱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강기수·김정호, 2013).

2000년 이후에는 새로운 학습형태가 도입되어 주입식 교육보다는 토론위주의 교육이 교실구조를 변화시켰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민간투자사업 등이 학교에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학교 전형적 모습을 탈피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수 있었다(강기수·김정호, 2013).

이상과 같은 논의를 기초로 본 논문은 사례 초등학교 교사의 공간적 배치 면에서 다음과 같은 것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먼저 일제 강점기 중요하게 여긴 체육 및 교련과 관계된 운동장의 배치나 넓이, 강당의 유무 변화를 살펴본다. 둘째로 교사동의 배치 유형이나 교사 내 행정실과 교실의 관계, 교실과 복도의 관계 등을 살펴본다. 이는 관리지원공간과 교수학습공간의 배치 관

표 2. 연구대상 학교

학교명	학교위치	개교연도	학생수(명)	주요특징
1	전주초등학교 대동로33	1897	221	근대기 개교하여 1925년 현재 위치로 이전한 학교로 일제강점기 학교 교사공간배치를 추측해 볼 수 있음
2	풍남초등학교 전환왕궁로 16	1919	179	일제강점기 개교한 학교로 당시 학교 교사공간배치를 추측해 볼 수 있음
3	화산초등학교 따박골7길 20	1971	733	2차 교육과정기 산업화가 한창일 때 표준설계도면에 의한 학교 교사 공간 배치
4	중산초등학교 중산중앙로 9-10	1995	642	6차 교육과정기로 민주화, 개인화 등이 강조된 학교 건축형태 및 교사 배치공간
5	홍산초등학교 마전들로 30	2016	242	7차 교육과정기의 다원화된 교육환경 모색을 반영

계 등을 살펴봄으로 감시에 의한 통제를 쉽게 할 수 있는 공간적 장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로 교사동 평면의 기하학적 형태, 외부공간과 내부공간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 해방이후 지속된 학교교사 건축의 획일성을 탈피하기 위한 시도들을 보고자 한다. 넷째로 학교 교과과정의 변화 등으로 요구되는 새로운 기능의 수용을 위한 특수교실 배치, 저학년 교실과 고학년 교실의 차별성, 일반교실과 특수교실의 공간배치관계, 체험실의 유무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섯째로 학교 교사 내 시설이나 운동장의 지역커뮤니티 이용 가능 여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교사동 증축에 의한 새로운 실 등의 마련을 살펴봄으로 시대에 따른 학교에 요구되는 것들의 수용을 추론하고자 한다.

III. 연구자료 분석

1. 전주시 각 시기별 초등학교 사례

전주시내 초등학교의 다섯 학교의 교사공간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주시의 초등학교를 살펴보는 것이 지역적 성격의 한계를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초등학교가 국가적으로 일반화된 표준도면에 의해 건축되었다는 점이다(이은미, 1994). 이로써 전국적인 보편성을 지닌 전주시의 초등학교만 살펴봄으로써 추론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살펴보고자 하는 학교는 교육과정 시기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먼저 1896년에 개교한 전주초등학교와 1919년 개교한

풍남초등학교를 근대 일제 강점기의 초등학교의 양상을 대표하는 것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해방 이후 산업화를 대변할 수 있는 1971년 개교한 화산초등학교는 초등학교로 개명되기 전 국민학교의 모습을 반영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 시기는 2차 교육과정기로 62년 표준설계도면이 작성되어 적용된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시기로 민주화와 개인화를 대별할 수 있는 시기인 1993년 교육부의 시설 시범학교로 건립 지정되어 1995년에 개교한 중산초등학교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시기는 6차 교육과정기로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꾼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현재를 탈근대기라고 가정한다면 최근 2016년 전주시에서 개교한 홍산초등학교의 평면 및 공간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1997년 제정되고 2015년 개정된 7차 교육과정기의 여러 다원화된 교육환경 모색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2 전주시내 개 시기별 초등학교에 대한 사례조사에 의한 도출 내용

1) 일대 강점기 개교 초등학교

1897년에 개교한 전주초등학교와 1919년 개교한 풍남초등학교를 근대 초등학교의 초기양상을 대표하는 것으로 살펴본바 학교부지가 상대적으로 넓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전주초등학교는 1897년 개교하였으며 1906년 신축 이전하였는데 다시 1925년 7월 21일 현재 위치인 태평동 64번지로 이전하였다. 1896년 조선 소학교령 공포 이후 전라북도공립소학교로 개교 하였다. 1925년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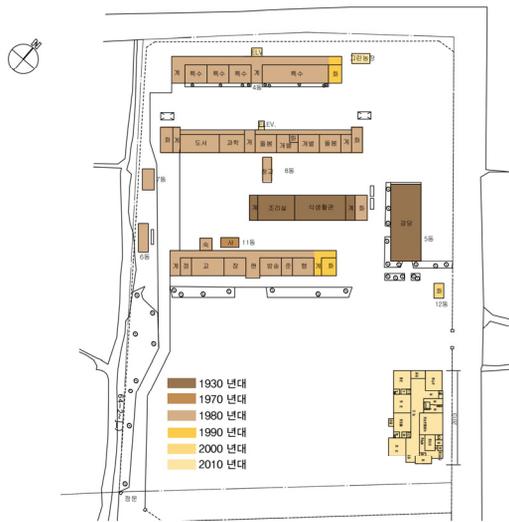


그림 1. 전주초등학교 건립연도별 동 배치



그림 2. 전주초등학교 전경

출처 : 전주초등학교 홈페이지.

의 교사구조는 교육전반에 걸쳐 식민지 교육정책의 기저가 구축되기 시작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학교 업무로서 학교 검열을 추가하고 강화했던 점이 공간에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제 강점기 체조과 과목(교련, 검도, 유도)의 강화로 강당이 일찍부터 지어져 있었다. 현재 강당은 당시건물을 철거하고 최근 다시 개축하였다. 해방 후 1961년 4학년 분리와 1984년 병설유치원이 개원되어 현재 총 12개 동으로 교사를 구성하고 있다(그림 1). 현재 교사를 구성하는 12개 동에는 특수동, 창고동, 식생활관, 강당, 특별교실동(컴퓨터, 영어), 유치원, 강당이 있으며 이 중 조리실, 식생활관으로 쓰이고 있는 중앙의 2층짜리 건물들은 일제 강점기 1930년대부터 존재하였던 건물이다. 현재 식생활관으로 쓰이고 있어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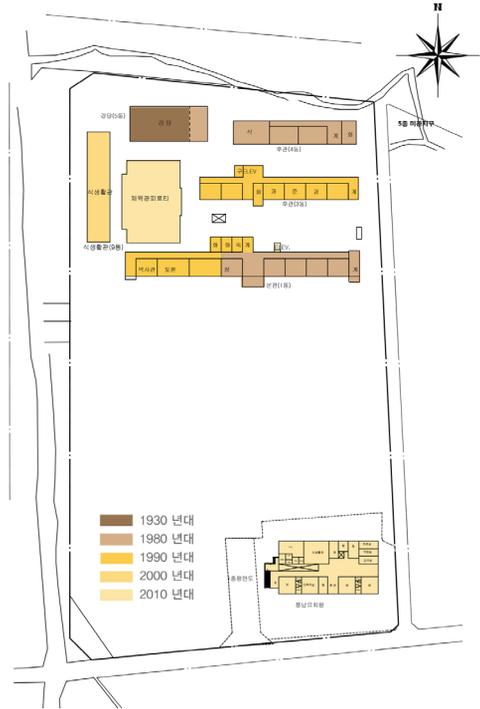


그림 3. 풍남초등학교 건립연도별 동 배치



그림 4. 풍남초등학교 강당 외부 및 내부

출처 : 2016년 8월 필자 촬영.

시의 교실구조를 보기는 어렵고 단지 기둥간격이나 건물폭 등으로 당시 일자형 복도의 남측에 일렬 배치된 교실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이 건물을 중심으로 북측과 남측의 3개 동은 1980년대에 지어진 건축물이고 특히 운동장을 바라보고 있는 건물은 90년대에 동측으로 증축된 바 있다. 모두 북측의 복도와 남측의 일렬로 배치된 교실을 볼 수 있어 이후 이루어진 외부 입면의 도색 및 의장부재 첨가에도 불구하고 80년대의 표준화된 교사구조를 볼 수 있다. 2010년대에 와서 병설유치원이 운동장 동측에 독립된 건축물로 신축되었다. 1930년대에 지어진 건축물만 생각한다면 최근 초등학교에 비해 비

교적 큰 운동장을 확보하고 있었고 병설유치원의 배치로 운동장의 넓이는 줄어든 것으로 생각된다. 감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형 복도와 획일화된 교실구성이 교사공간배치의 주를 이루고 있다.

1919년 개교한 풍남초등학교도 전체적인 공간구조에서 전주초등학교와 비슷하다. 학교 복단에 1930년대 지어진 강당과 2010년 신축된 체육관이 공존하고 있다. 강당은 전주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초등학교에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할 만하다. 이는 일제강점기 체조과 과목이 강조됨으로 요구되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관과 후관(4동)은 1980년대에 지어진 것이고 후관(3동)은 1990년대 건립되며 이때 본관 서측이 증축되었다. 또한 복도 중앙 북쪽으로 화장실 및 계단실을 부가하였는데 이는 건물 양단부에 있는 계단보다 건물 주 계단으로 보일 수 있게 되었다. 2013년 병설유치원이 신축되었으며 현재 운동장 주변 산책로 및 운동기구 배치도 특이할 만한 점이다. 이는 유치원교육이 보편화되며 초등학교 내 유치원의 독립된 건축물로 병설경향이 전주초등학교, 풍남초등학교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이다. 또한 현재 초등학교의 지역 근린에서의 역할이 강조되며 운동장의 외곽부 일부가 외부공원을 대체하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풍남초등학교의 경우 운동장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은 과거 교련과 체육이 매우 강조되었던 일제시대, 산업화시대의 양상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넓은 운동장의 기준은 이후 학교시설의 수요량이 늘어남에 따른 용지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방향으로 개정된다(노란 등, 2011).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학급 수가 줄어들며 일반교실이 교과교실 및 특수교실로의 전환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수교실에는 토론실, 역사관, 과학실, 자료실, 영어실, 행복교실, 컴퓨터실 등이 있으며 돌봄 교실이 5개, 방과 후 교실이 7개로 초등학교 교육이 정규교과과정 뿐만 아니라 방과 후 활동이나 돌봄 기능이 매우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맞벌이 부부에 의해 양육되는 자녀들이 많아지는 추세에 따라 학교에서 교육의 기능뿐만 아니라 탁아의 기능이 매우 강조되고 있음으로 생각된다. 운동장에도 산책로나 주민쉼터 등이 있는 것으로 학교가 배타적 공간에서 지역커뮤니티의 거점공간으로 인식되고자 하는 노력을 읽을 수 있다.

2) 해방 이후 산업화시대의 초등학교

해방 이후 산업화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1971년 개교한 화산초등학교는 초등학교로 개명되기 전 국민학교의 모습을 반영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화산초등학교 개교시점은 2차 교육과정 시기로 반공, 도덕교육이 중시되었고 체육, 음악, 미술교과를 통한 건강교육 및 정서교육도 강조되며 교과시간과 더불어 특별활동이 강조되었다. 71년 학령인구증가를 지적인 바대로 20학급으로 시작하여 현재 특수학급 1학급을 포함 39학급으로 증축이 꾸준히 이루어져 7개 동사로 구성되어 있다. 전주초등학교, 풍남초등학교, 화산초등학교 모두 새로운 기능 및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는 교사의 증축이 이루어졌음은 초등학교의 교사공간구조의 일반적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그림 1, 2, 3, 4, 5). 특이한 것은 풍남초등학교, 전주초등학교가 일찍부터 강당이 있었던 데 비해 화산초등학교는 강당이 비교적 최근인 1998년 건립되었으며 이는 지자체 행정이 확산되고 개성을 강조한 교육이 강조되는 시기이다. 또한 2010년에는 도서실, 영어 체험실이 있는 특별교실동이 2동사와 1동사의 사이에 연결 복도를 두고 독립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점도 최근의 학교 건축의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즉 최근 신축되는 초등학교의 경우 특수교실이나 행정실 등의 부속실은 고학년 저학년 동과는 별도의 연결되는 동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그림 5).

3) 90년대 민주화 개인화가 강조된 시대의 초등학교

세 번째 시기로 민주화와 개인화가 강조된 시기인 1993년 교육부의 시설 시범학교로 건립 지정되어 1995년에 개교한 중산초등학교는 풍남초등학교에 비해 학교 부지에서 운동장이 차지하는 넓이 비율이 현저히 작음을 볼 수 있고 교사의 배치에 있어서도 직선형이 아닌 곡선형이 도입되었다(그림 6). 이는 4차 교육과정기에 이미 학교설립용지 확보난 해소를 위해 운동장 기준 면적이 축소된 것에 따름이다(노란 등, 2011). 또한 한 개의 큰 운동장으로 대표되는 외부공간보다는 교사동 간 중정공간이 고려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 친밀한 공간에 의한 공간의 개인적 경험이 강조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산초등학교는 1992년 9월 발표된 6차시기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 교육과정에서는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생활, 민주적이고 협동적인 생활이 강조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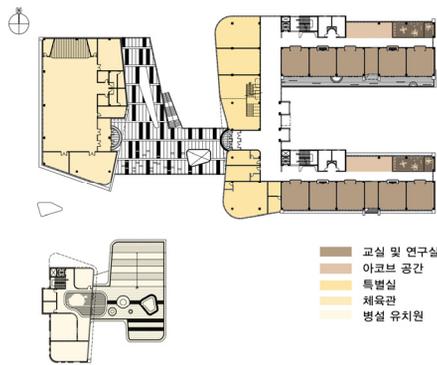


그림 8. 홍산 초등학교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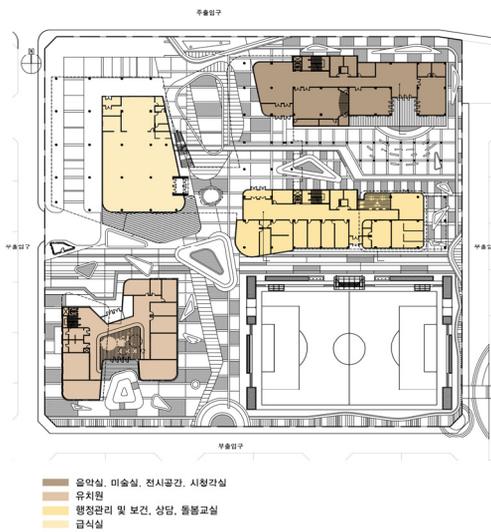


그림 9. 홍산 초등학교 1층 배치도

있음을 볼 수 있다(그림 8, 9).

4) 현재 개교하고 있는 초등학교

마지막으로 현재를 탈근대기라고 가정한다면 최근 2016년 전주시에서 개교한 홍산 초등학교의 평면 및 공간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시기는 7차 교육과정이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고 있는 시기이며 특히 2009년 개정에서는 미래형 인재상으로 글로벌 창의인재를 들고 있다(노란 등, 2011). 또한 2015년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창의적 체험활동이 강조되고 있으며 1, 2학년은 체험활동 중심의 안전한 생활을 포함하여 편성, 운영되고 있다. 홍산초등학교의 평면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복도, 공용공간의 재해석이다. 획일적인 복도가 아닌 복도의 부분 부

분이 알코브공간으로 확장되어 커뮤니티, 휴게, 연계교육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그림 8). 이는 공용공간의 임시, 융통성 있는 공간의 삽입이나 다목적공간이 강조되고 있음이다(강만호, 2005). 이는 창의적인 체험활동이 강조되며 획일화된 공간에서의 체험보다 열려있고 변화될 수 있는 공간에서의 창의성이 진작될 수 있음을 고려했다고 이해된다. 이를 위해 최근 건립되는 초등학교는 기존 초등학교들에 비해 건물 폭이 두꺼워지고 있다. 교무실, 행정실 등의 관리지원공간이 운동장에 면한 교사동 저층부에 배치되나 운동장이 학교부지 전체를 아우르지 않기 때문에 학교 교사 내 중심에 배치된 것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면에서 행정관리영역의 권위적 배치경향은 약화되고 있다. 또한 교사동, 강당 및 식당, 부설유치원이 학교부지 내 각각의 영역성을 가지고 배치되며 이를 2층 데크로 연결하여 외부공간의 수직적인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홍산초등학교에서는 주민공간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특기할만한데 풍남초등학교에서 본 운동장 주변의 산책로 및 정자, 운동기구 배치 등이 더 적극적으로 디자인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주민들에게 대여할 수 있는 특별교실을 저층에 배치하여 지역민들의 사용이 용이해졌다(그림 6). 이러한 최근의 초등학교 공간의 경향은 2010년 교육시설 디자인 공모전의 주제와 당선작 경향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지역에서의 학교의 위상 재조명은 최근의 학교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향후 더욱 다양한 양상의 공간이 모색될 것으로 전망한다.

3. 소결

전주시 네 개의 시대를 대표하는 다섯 개 학교를 분석한 결과로 운동장의 면적이나 강당의 유무여부를 살펴보면 일제강점기 큰 면적을 할애하여 마련된 운동장은 꾸준히 그 면적이 작아지고 있다. 이는 학교설립의 기준에서 큰 면적을 차지하는 운동장 면적을 줄임으로써 학교부지를 확보하기 쉽게 한 것에 기인한다. 여기에 90년대 이후 운동장이 본관 전면에 정점으로 배치됨으로 권위주의적인 공간배치를 보였던 데에서 탈피해간 디자인 경향도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동서로 긴 일자형 교사동이 남북으로 병렬되어 있는 배치는 화산초등학교까지 그대로 유지되지만 민주화, 개인화가 강조되던 시기인 90년대에 와서는 다양한 배치형태가 시도된다. 전주초, 풍산초, 화산초는 운동장이

학교부지 동서경계를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운동장을 바라보는 본관은 학교부지 중앙에 배치되어 있다. 이들 초등학교의 행정관리동이 본관 중앙에 위치하여 교사부지 전 영역을 권위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에 비해 중산초등학교는 행정관리영역의 위치가 중심에 있지만 별도의 동으로 배치하여 각 교사동의 영역성을 존중하는 것으로 느껴져 권위적인 느낌이 줄어든다.

교사동 평면의 기하학적 형태는 동서로 긴 일자 형태에서 90년대에는 지하년 동이 곡선으로 배치되는 등 획일적인 형태를 벗어나고 있다. 이는 민주화, 개인화가 강조되는 가운데 운동장 중심의 외부공간에서 교사 내 다양한 작은 스케일의 친밀한 분위기를 갖는 외부공간을 배치 할 수 있게 한다. 최근 개교하는 초등학교는 이런 외부공간이 지상레벨뿐 아니라 2층 데크를 설치하여 좀 더 수직적인 분화를 보이고 있다.

교실평면은 전주초, 풍남초, 화산초등학교의 경우 길이와 폭에서 획일적인 형태이다. 다양화된 교과과정이나 특별교실 요구를 기존교실의 변경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산초등학교는 교육의 초점이 개인의 발전으로 옮겨지는 교육과정 가운데 다양한 교육환경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특히 지하년 교실은 좀 더 어린 학생을 친밀하게 돌볼 수 있는 특화된 평면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교실의 경우도 피아노실, 영어실, 돌봄교실, 컴퓨터실 등이 구비되고 있다. 홍산초등학교는 다양한 특별교실들을 학급 교사동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부분에 조닝하여 배치함으로써 특별교실에 대한 고려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다목적 공간도 이 부분에 배치되어 새로운 분위기의 학습환경을 시도하고 있다. 복도공간에 창의적인 체험활동이 강조되며 알코브공간을 두어 개방된 멀티미디어 공간 등을 할애하는 것도 학교공간의 획일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로 읽을 수 있다.

전주초등학교와 풍남초등학교는 큰 운동장을 지역주민에게 산책로로 배려하여 개방하고 있다. 중산초등학교와 홍산초등학교는 특별교실 등의 지역민 개방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홍산초등학교는 특별교실을 저층부에 조닝하여 배치하고 있다.

전주초등학교나 풍남초등학교는 학령인구의 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교실동을 증축해 왔다. 그러나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와 교육과정의 다양한 특별교실 요구로 일반교실을 특별교실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IV. 결론

근대기 새로운 지식, 공간, 시간의 인식과 함께 새로운 통치 장치로서 등장한 학교는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강점기를 통해 신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등장하였다. 일제 강점기의 전체주의적 교육 장치로써 초등학교는 큰 전정과 같은 운동장과 함께 일자형 교사로 배치되어 군사훈련 같은 집체교육이 행해졌다. 운동장의 단상이나 교실의 획일화된 전면을 집중하게 하는 배치 등은 통제와 감시 장치로 읽을 수 있다. 전주시의 전주초등학교와 풍남초등학교는 증축과 개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당시의 학교공간을 직간접적으로 읽어낼 수 있다. 특히 큰 운동장이나 강당은 이 시기 학교건축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초등학교 공간유형은 해방 후 계속적으로 활용되었고 그 평면유형도 비슷하게 참고되어 유지되며 1차 교육과정 제정과 함께 사용되었다. 60년대 국민교육을 확대해야 할 필요와 학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표준설계도면이 만들어지며 대량생산되는 산업화시대의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 전주 화산초등학교는 이 산업화 시기의 학교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교육과정의 개정과 함께 요구되는 새로운 기능이 증축된 것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대개의 초등학교의 모습은 화산초등학교의 모습처럼 지속적인 교육과정의 변화에도 획일적인 것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90년대 민주화와 함께 초등학교의 모습은 이전의 획일적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모습을 전주 중산초등학교가 보여주었고 있으며 교사동의 곡선형 매스나 지하년 교실의 교과준비실 및 화장실과의 클러스터화에 의한 친밀한 돌봄, 교무실과 행정실의 별도 클러스터화에 의한 교실 영역성 강화는 그간의 일자형 복도에 의한 감시기능을 약화시키며 친밀한 중정 등의 양상을 보인다. 이는 교육이 개인마다의 다양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근대의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통제장치로서의 학교모습을 다각화하며 그 모습을 변화시켰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대에는 민간의 대안학교 같은 새로운 교육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학교가 시도되는데 교육시설학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시설공모전은 이런 새로운 건축형태를 모색하는 노력으로 보인다. 전주 홍산초등학교는 이런 경향을 반영하여 미래교육에 대한 모색으로 창의적 체

험공간을 강조한 다목적 공간을 복도공용공간에 담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위한 주민공간의 확대가 운동장 주변의 산책로나 운동기구, 주민대여가 가능한 저층부 특별교실에서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근대기의 새로운 통치 장치로서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현대의 탈근대 사회에서도 새로운 형태를 모색하며 통제에서 자율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푸코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학교에서의 자율적인 환경에서 통제를 체득해가는 것은 더욱 고도화된 통제의 형태로 탈근대기 학교에도 유효할 수 있으며 이를 근대 학교에서 탈근대기 학교로의 전환 노력으로 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학교가 국민의식을 만들어내는데 주안점을 갖는 것에서 보다 다양한 개인의 발전으로 그 지향점을 변화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새로운 국가를 위한 미래인재를 키워가는 국민 교육 기반시설로서 기능하고 있음이다.

참고문헌

- 강기수·김정호, 2013, “초등학교 공간에 관한 비판적 논의,” *교육사상연구*, 27(1), 1-27.
- 강만호, 2005, “초등학교 교육환경변화에 따른 공간전용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구수경, 2007, “근대성 구현체로서 학교: 시간, 공간, 지식의 구조화,” 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지원, 2000, “학교공간에 대한 교육철학적 고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균·정근식 편, 1997,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서울: 문화과학사.
- 김진모·임수영, 2007, “교육시설의 공간구성과 이용방법에 관한 연구: 일본과 미국의 1970년대 이후의 초등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시설학회지*, 14(1), 44-51.
- 노란·윤성훈·정진주, 2011, “교육과정과 학교 시설·설비 법령의 변천 비교에 따른 향후 개정 방향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논문집*, 18(5), 23- 33.
- 오생근 역, 1994, 「감시와 처벌」, 파주: 나남출판.
- 유우상·김정규·문정민·신태양·심재춘·오세규·윤대한·이회숙·이효원·장동국 역, 2006, 「권력과 건축공간: 근대사회 성립과정에 나타난 건축의 자유와 통제」, 서울: 시공문화사.
- 이기쁨, 2015, “학교 공간 디자인이 학교 교육과 경영에 가져온 변화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기숙 역, 2011, 「인간과 공간」, 서울: 에코리브르.
- 이은미, 1994, “교육공간으로서 학교공간의 의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종국, 2008, 「한국의 교과서 변천사」, 서울: (주)대한교과서.
- 이진경, 1997, 「근대적 사공간의 탄생」, 서울: 푸른숲.
- 조명래, 2013, 「공간으로 사회 읽기: 개념, 쟁점과 대안」, 파주: 한울.
- 진덕규 역, 1991, 「민족국가와 폭력」, 서울: 삼지원.
- 진동섭·한은정·이승호·나현주·오유진·임선빈·이기쁨·박원영·김태연·최현진, 2014, “학교 변화의 새로운 요인 탐색: 폐교 위기를 극복한 J초등학교 D분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31(2), 345-371.
- 허문권, 2010, “한국과 중국의 교육과정 변천 비교 연구: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네이버 지도, <http://map.naver.com>
- 전주초등학교 홈페이지, <http://jeonju.es.kr>
- 교신 : 김준영, 55069,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이메일: junyoungkim@jj.ac.kr)
- Correspondence : Jun-Young Kim, 55069, 303 Cheonjam-ro, Wansan-gu, Jeonju-si, Jeollabuk-do, Korea, Department of Architecture, Jeonju University (Email: junyoungkim@jj.ac.kr)

투 고 일: 2017년 11월 18일
심사완료일: 2017년 11월 29일
투고확정일: 2017년 12월 10일

